

Public Art

Mihye, Kim: Interview

November 2020

PUBLIC ART | 퍼블릭아트

## Special Feature No. 4

엘름그린 & 드라그셋:  
공공미술, 인간 삶의 본질을 꿰뚫다



Photo: Elmar Vestner

인터뷰 김미혜 기자

SPECIAL  
FEATURE

NOVEMBER 2020



<Short Cut> 2003 Mixed media 250x850x300cm © Galleria Massimo De Carlo, 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 Collection Photo: Jens Ziehe

**Q.**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오래전부터 이어왔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변화한 지금, 공간과 공동체에 대한 의미도 변모하고 있다. 공공미술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는가?

2020년 미술관이나 갤러리 공간에 모이기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야외 설치 공공미술 작품이 더욱 절실해졌다. 공공미술은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다양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 그 자체를 기념한다.

야외 공공조형물 기획의 커미션 절차는 비교적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공공미술이 어떤 변화를 겪을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아직 가능하기엔 이르다. 그리고 현재 실현되고 설치되는 것들은 사실상 지난 2-3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미 팬데믹 이전부터 새로운 방식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 공공미술이 단순히 우리의 도시 풍경 안에서 중립적이고 신중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아닌, 보다 과감하고 대담한 방식을 택한다는 점이다.

**Q.**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이 발표되고 기존 기술에 접목되어 또 다른 기술이 생산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공공미술이 디지털 리소스와 결합될 때,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작업하지는 않으나 프로젝트 초기에 우리는 새로운 디자인 고도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현실적으로 렌더링 한다. 작품 구현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작품이 주변 환경과 어떤 형태로 조화를 이룰 것인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품을 전시하는 물리적, 맥락적 현장의 의미를 진중하게 다룬다. 작품 과정 전반에 걸쳐 장소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런 의미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공공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에는 이런 창작 과정이 도드라진다. 물리적 조각 작품의 물성은 VR 시대에 특히 중요하다. 일상의 상당한 부분을 온라인과 디지털로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물리적 현실 속에 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Q.**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민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사회적 약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이들에게 공공미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공공미술은 입장료가 없으니 기본적으로 무료다. 일상의 공공장소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끌기 위한 상업 광고에 대응하는 평행 추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공공미술 작품을 본 행인에게 웃음이나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고, 화가나 게 하거나 생각에 잠기게 할 수도 있다. 또한 공공미술 조각 작품이 특정 장소

에 온전히 도착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일례로, 경로나 장소를 설명할 때 지형지물이 되어 “그 조각 작품 지나서”, “그 작품 앞에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공공미술 작품을 의뢰하는 당국 담당자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제안을 수렴하여 작품이 충분한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종종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시민들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스스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우리는 그것이 건강한 사회의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Q. 아이러니하게도 기술 발달의 속도보다 빠르게 생존과 직결된 기후 문제, 환경문제 등도 우리 앞에 직면해 있다.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시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과정에서 공공미술은 어떻게 민주적이고 스마트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생활해온 것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여행 활동을 감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르게 말하자면 지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가까운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미술은 지역 사회와 주민이 지역 사회 자원을 감득하도록 도울 수 있다. 때로는 지역 내에 있는 원칙적 공유 공간이 모두의 공간임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다. <A Greater Perspective>(2015)는 삼각대에 거치된 망원경을 겹쳐 놓은 것처럼 마감한 청동 조각품이다. 과장된 형태로 실제로는 들여다볼 수 없는 이 작품은 뉴욕 하이 라인 공원(High Line Park)에 설치됐다. 그 위치에서 어렵게 보이는 자유의 여신상 전망에 시선을 환기했는데, 계획된 토목 사업으로 그 전망마저 조만간 가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망원경도 기능이 온전치 않은 형태로 설치하면서 작품이 설치된 하이 라인 공원 자체가 공공장소임과 그런 공간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었다. 공공미술은 도시와 사회의 현실을 조명하는 밝은 빛이 될 수 있다.


**Q.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할 중요한 개념과 키워드는 무엇이라 여기나?**

2020년 세계 공통으로 겪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정책은 인간사에 사회 활동의 소중함과 상호의존성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팬데믹의 경험이 심오하고 교훈이 있을 거라 말하지만 장기적인 학습 효과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과거의 구조적 실패를 이내 반복하는 건 망증적인 보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1918년 유럽에 창궐했던 독감 이후의 학습효과도 미미하다. 모든 것이 다시 기존의 ‘정상’으로 되돌아갔고 여행처럼 통제되었던 활동도 금방 활성화되었다. 그 당시 전염병 확산을 위해 내린 조치는 오늘날 시행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만 이를 기점으로 다다이즘(Dadaism)과 바우하우스 운동(Bauhaus Movement)이라는 매

우 다른 이론적, 예술적 접근을 가진 현상이 독일의 예술계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번 팬데믹 말미에도 현실도피와 공동체적 비전 제시라는 상반되는 개념의 조합이나 병치를 통해 발전되는 것이 있을지 모른다. 우연인지 몰라도 기존 작품의 사진이 최근 온라인 기사에 삽화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사회적 격리감, 외로움의 표현, 그리고 사회 복지 수급 탈락의 불안감을 묘사하기 위한 삽화였다. 어쩌면 예술은 여전히 인간의 취약성을 되새기며 이를 약용하는 권세에 대한 경각심을 줄지 모른다. 미술은 특정한 것에 대한 공감을 상호 확인하는 유대 형성 수단이기도 하다.

**Q. 전시공간부터 예술가, 작품까지 예술의 범위 자체가 급변하고 있다. 작가로서 당신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변화와 과제는 무엇인가?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우린 운이 좋았던 것 같다. 향후 몇 년간 다양한 프로젝트가 계획되어있다. 기존의 프로세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원격성을 띄게 되었다. Zoom 화상 회의나 이메일 등의 원격통신 사용이다. 운이 좋게도 베를린과 헬싱키에서는 직접 찾아가 전시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베를린에서는 개인전 <Short Story>를 지난 5월 쾨니히 갤러리(König Galerie)에서 열었다. 전시공간에 장소 특정적 대형 작품으로 테니스장과 3개의 상징적 조형물을 설치했다. 조형물 두 개는 테니스 경기를 막 마친 듯한 소년 둘로, 한 명은 승자, 다른 한 명은 패자의 몸짓을 보인다. 미국 이스트 햄튼(East Hamptons) 페이스 갤러리(Pace Gallery)에는 이번에 새로 열린 야외 전시 일환으로 실제 테니스 코트에 두 개의 조각품을 세워 놨다. 핀란드에서 최근 개최한 개인전 <2020>은 브루탈리즘(Brutalism) 건축양식으로 지은 미술관의 전시공간을 주차장으로 둔갑시켰다. 실제 자동차를 들고 바닥에 도로 표식을 남겨 기존 조각 작품 일부를 전시했다. 전시 제목을 <2020>으로 지은 이유는 2020년이라는 한 해 동안 이런 대형 야외 주차장 같은 감성을 여러 번 느꼈기 때문이다. 주차하기 위해 들어왔든, 주차한 차를 찾으러 되돌아왔든 어서 벗어나고 싶어지는 묘한 분위기와 돌발 사건의 공간 말이다.

내년 계획된 가장 큰 프로젝트는 밀라노에서 진행되는데, 그 전에 상황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진입해서 조금은 일반적인 전시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공공 설치 작품을 조만간 공개하게 될지 모르니 크게 뜨고 주목해 달라.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아티스트 듀오 엘름그린 & 드라그렛은 1995년부터 협업하며 작품을 선보여 왔다. 건축, 퍼포먼스,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이들은 냉소적 유머와 철학이 공존하는 작품을 통해 자신들이 대면한 세계 속 고착화된 관념들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하고 고발하는 등 현대사회에 대한 다채로운 담론을 형성해 왔다. 이들의 작품은 독일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Hamburger Bahnhof - Museum für Gegenwart), 미국 시카고 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 덴마크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 등 세계 유수 기관에 소장돼있다.



NOVEMBER 2020



<Van Cogh's Ear> 2016 Fibreglass, stainless steel, lacquer, lights, 900x500x240cm © the artists and the K11 Art Foundation, Galerie Perrotin, Galleria Massimo De Carlo, and Victoria Miro Gallery Photo, Jason Wyche, Courtesy Public Art Fund, NY

PUBLIC ART | 퍼블릭아트



<Stature of Liberty>- 2018 Original section of the Berlin wall, cash machine, stainless steel 298x149x148cm  
© Galerie König Photo: Matthias Voelzke



<Short Story>- 2020 Installation comprised of two human figures, one racquet, and a tennis ball. Figures cast in bronze and lacquered, ball in marble Overall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164,9x823x2,377,4cm as installed in East Hampton, New York © Pace Gallery Photo: Jonathan Nester.uk

NOVEMBER 2020

## Elmgreen & Dragset: Public Art, Penetrate the Essence of Human Life

Interview by Kim Mihye

**Q. You've done public art projects from very early on. Now that COVID-19 has changed many things, contact may not last and the meaning of space and community may change. How do you expect the scope and definition of public art to change?**

As it has turned more problematic to gather in museums and art galleries throughout 2020, the presence of outdoor public art works has become even more urgent. Public art is a celebration of our shared spaces and of the idea of togetherness itself - in spite of all our differences.

The commission process when planning an outdoor public sculpture is relatively long so it still too early to see if public art as such has undergone any changes due to the pandemic and the way our societies have changed. What is about to be realized and installed right now are projects that have been on their way for the last two-three years mostly. However, already before the pandemic one could sense certain new modes in public art projects, which have dared to include bolder statements, rather than just being more neutral and discreet backdrops within our city scape.

**Q. Every day, a variety of new technologies are announced and incorporated into existing technologies, producing another technology. And all of this is done so quickly. When public art meets with digital resources, what synergy do you think can create? How will the form change?**

We don't really work in digital media but when we create our sculptural projects we make use of new advanced programs

to render the project in a realistic way, both in order to plan the execution of the art work and also to get a clear impression of how the sculpture will fit into the surroundings. As artists who take in the significances and contexts of the physical sites where our art is exhibited, we look closely at locations throughout the creative process, especially when making public art, and being able to visualize our ideas in this way is key. However, the materiality of a physical sculpture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our age of virtual reality - as a reminder of us still being physical beings even though we might spend a lot of time online.

**Q. But the important point is that someone can be left out in the process. It is too self-evident that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of a city is its citizens. What role do you think public art should and can play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relatively marginalized?**

First of all, public art is free - there is no admission fee. It is also a counterpart to all the commercial advertisements that we find in our public spaces. Sometimes a public artwork can make the passers-by more cheerful or hopeful, or make them upset or thoughtful. When a public sculpture succeeds in becoming part of a location's DNA, it can even have the potential to make locals feel a sense of belonging - like when people suddenly use a sculpture as a point of navigation, saying for instance "let's meet by this or that sculpture". It is of course important that commissioners of public art take care to invite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to come up with proposals for public art, so the world doesn't end up with art works that are representative of a small fraction of the population. Often public art projects can stir some debate, which we also regard as something quite healthy since it proves that people still feel that they should have a say about what happens in our cities.

**Q. As technology is developing, simultaneously, climate and environmental issues are facing us. What do you think is the true meaning of smart city? So how do you think public art can communicate in a democratic and smart way in this process?**

We all need to turn greener and unfortunately it also seems like we all need to reduce our travel activities in order to reduce each



our carbon footprint. That means that we must be more local and more focused on resources that are within our proximity. Public art can help communities become more aware of their local resources. Sometimes citizens are simply not aware of spaces that are in principle shared spaces, belonging to everybody. Our work *A Greater Perspective*, a black patinated bronze sculpture in the shape of an oversized telescope on a tripod that's too big for anyone to look through was installed on The High Line in New York in 2015. There, it drew attention to an obscure view of the Statue of Liberty, which was likely to be soon concealed by developments. But by rendering the telescope dysfunctional, it was possible to also draw attention back to the very space where the work was installed - The High Line itself and how important it is as a shared space for New Yorkers. Public art can be a powerful tool for highlighting realities existing in our cities and societies.

**Q. What do you think are the important concepts and keywords we should take into account post-COVID-19? What attitude or concept do you think we should take? If you could introduce it to your project?**

We think that the lockdowns that we experienced globally in 2020 taught us how precious socializing actually is, how much we need each other. But it is probably an illusion that we will learn a lot from this pandemic since history has shown that we humans quickly forget and then re-establish the structures from before. No one seemed to learn much from the 1918 influenza pandemic: things slowly returned to normal, things like travel began to accelerate again, and many of the precautions taken then are the same as those in place today. That being said though, following World War I and the effects of that pandemic in Germany, both Dadaism and the Bauhaus movement developed in the arts, with two very different theoretical and artistic approaches. Maybe we'll again see a combination, or juxtaposition, of some sort of escapism and communal vision. Strangely, we have witnessed that images of our older works have been used online and in articles lately, to illustrate the current feeling of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combined with a fear of loss of social welfare. Art can perhaps still be a reminder of human vulnerability, and a warning against powers that exploit this vulnerability. It is also a way to tell each other: hey, we are among many people that feel the same way!

**Q. From exhibition spaces to artists and works, the scope of art is rapidly changing with COVID-19. What are the biggest changes and challenges you are feeling as artists now? Tell me about your future plans.**

We are very fortunate and have many projects planned for the next couple of years. Some parts of the process now have to happen in new and more remote ways, through Zoom, emails and other forms of long-distance communication but luckily, we have also been able to do exhibitions both in Berlin and in Helsinki where we could be present ourselves. In May, in Berlin our solo exhibition *Short Story* was held at König Galerie, where we transformed the space with a large site-specific installation of a tennis court with three new figurative sculptures. Two of these sculptures were boys who have seemingly just played a game of tennis - one is the winner and the other is defeated. These sculptures have now just been installed outdoors on a real tennis court in a new exhibition at Pace Gallery in the East Hamptons, USA, where a new audience can see them. In Finland, our solo exhibition, *2020*, just opened, where we transformed the brutalist exhibition spaces in the museum into a car park, incorporating real cars, road markings, and a selection of our sculptures. We gave this exhibition the title '2020' because this year has felt somewhat like the atmosphere you might experience in a car park - something you want to leave soon after you have entered.... a little bit eerie with lots of unexpected events.

Next year our biggest project will be in Milan and fingers crossed that the situation allows for more normal conditions at that time. There might even be some more public sculptures in the pipeline, you'll have to keep your eyes peeled (laughs). <sup>24</sup>

Elmgreen & Dragset, who have collaborated as an artist duo since 1995, live and work in Berlin. The artists, across multiple mediums including architecture, performance, installation and sculpture, not only create narrative scenarios but also draw on absurdity to undermine the power systems that are embedded in the society we live in. Their works can be found in major museums including the Hamburger Bahnhof - Museum für Gegenwart,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 the 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 etc.

NOVEMBER 2020

<Powerless Structures, Fig. 101> 2012 Bronze 411x174x142cm  
© Commissioned for the Mayor of London's Fourth Plinth Programme Trafalgar Square Photo: James O Jenkins



<A Greater Perspective> 2015 Bronze, steel, black patina, wax 370x375x190cm  
© Galerie Perrotin Photo: Guillaume Ziccarelli

